

## 대순사상은 세계 문명 위기 해결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배 규 한\*

### ■ 국문요약

이 글은 작금의 전 지구적 세계 문명 위기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국종교사상의 관점에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적 격변기인 구한말 시기에 태동한 대순사상으로 현대세계에 노정된 문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문명 위기의 해결과 극복에 왜 해원상생의 법리와 그 사회적 실천이 요구되는지, 해원상생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궁극적 세계는 어떠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대표적 세계평화 이념이자 원리이다. 증산 성사는 세계와 우주 즉, 천지인 삼계에 누적된 원과 한을 천지공사라는 종교적 대역사와 해원상생의 법리로 근원적으로 해소하면 이 땅 위에 항구적 평화세계인 후천 선경이 도래한다고 예시하였다. 증산 성사의 해원상생의 법리와 후천 선경 예시는 인류가 처한 세계 문명 위기 해결과 극복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아울러 세계 문명 위기에 처한 지구촌에 희망적인 이정표를 제시한다.

전례 없는 천재지변, 기후변화, 폭발적인 인구 증가, 환경오염과 파괴, 자원 부족, 생물 다양성 손실, 불평등과 빈곤, 과잉 소비, 끊이지 않

---

\* 대순사상학술원 원장·대진대학교 교수, E-mail: khbai@daejin.ac.kr

는 전쟁, 축적된 핵무기 등 세계 문명 위기를 드러내는 전 세계적 문제들에 인류와 세계는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뚜렷한 대안과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 문명 위기와 해원상생’, ‘해원상생과 세계적 문명 위기의 극복’, ‘해원상생의 실천과 항구적 세계평화’라는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대순사상은 세계 문명 위기 해결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시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대순사상, 해원상생, 세계평화, 세계 문명 위기, 인존시대, 선경시대, 평화시대

- I. 세계적 문명 위기와 해원상생
- II. 해원상생과 세계적 문명 위기의 극복
- III. 해원상생의 실천과 항구적 세계평화
- IV. 맺는말

## I. 세계적 문명 위기와 해원상생

인간의 욕망이 나날이 다원화하는 현시대에, 어떻게 하면 세계 문명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사에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여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담론으로 종교가 세계 문명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세계적 격변기인 구한말 시기에 태동한 대순사상<sup>1)</sup>의 해원상생<sup>2)</sup> 이념이 작금의 세계 문명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계적 문명 위기와 해원상생, 해원상생과 세계적 문명 위기의 극복, 해원상생의 실천과 항구적 세계평화라는 소주제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세계는 자연의 무한 파괴, 환경의 무한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산업화

1) '대순사상'은 한국의 대표적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의 교의와 이념에 기반 한 한국 자생 종교사상·평화사상으로 구한말의 대표적 종교사상가인 강증산 성사의 해원상생·보은상생·구제창생·천지공사·인존사상·화평사상·선경사상 등의 사상체계를 말한다.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2018), p.4 참조.

2) '해원'은 인간·신명·세계에 쌓인 원함과 원한의 구조를 풀어 가는 것이고, 상생은 서로 간에 잘 되게 하는 작용 또는 함께 잘 사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해원상생은 '원함을 풀고 서로 잘 산다'는 말이다. 같은 글, p.20 참조.

와 시장전체주의의 논리를 따라 경제 성장에 매몰했다.<sup>3)</sup> 이러한 신념은 인류 문명을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이끌었고, 성장의 한계를 초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게 하였다.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제6차 종합 보고서」(2023)에서는 각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실행하더라도 2040년 이전에 지구의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등을 내놓았다. 지난 30년 동안 전문가들이 온난화 위기를 계속 경고해왔으나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를 꺾지 못한 셈이다. 뒤늦게 많은 선진국이 이러한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이른바 세계는 ‘기후지옥(climate hell)’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목전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2022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7차 기후 당사국총회 개회 연설에서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기후 연대 협정을 맺을지, 아니면 집단 파멸의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할 시점”에 있으며,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2030년까지 결정될 것”임을 강조했다.<sup>4)</sup> 이는 기후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갈등 증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대형산불, 그리고 지구의 사막화는 곡물의 생산량을 급감시켜 대규모 기후난민을 양산할 것이다. 지금도 80억 인구 가운데 굶주리는 인구는 8억 명으로 추산된

3) 도정일,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서울: 생각의나무, 2008), p.94.

4) 김재중·김혜리, 「유엔 사무총장 “인류, 기후 지옥 가는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아” … ‘협력이나 멸종이나 택하라’ 경고」, 《경향신문》 2022. 11. 8.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211082118005#c2b>, 2023. 9. 1. 검색).

다. 전 세계적 식량 부족과 고갈은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가중하여 기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기후 위기가 닥치면 자연만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에 내몰려 통제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인구 증가, 과잉 소비, 급속한 도시화, 토지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 불평등과 빈곤 등과 같은 전 영역의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경제학자 로버트 하일브르너(Robert L. Heilbroner, 1919~2005)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류는 인구 증가, 자원고갈, 환경 파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sup>5)</sup> 특히, 거대 탄소 저장고인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얼음에 갇혀있는 고대 바이러스의 유출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후지옥은 다음 세대들을 더욱 악화된 세계사적 문명 위기에 직면케 할 것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1986)<sup>6)</sup>에서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을 ‘위험사회’로 정의하였다. 위험사회란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거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 위험이었으나, 현대 사회의 위험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인위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위험사회가 된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과학기술을 지적하였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막대한 생산력과 물질적인 풍요를 축적하였지만, 그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현재의 위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가 산업화되어 발전할수록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하고 위험이 증대되는 사회가 될 것을 전망한 것이다. 이에 그는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5) Robert L. Heilbroner, *An Inquiry into the Human Prospect: Looked at Again for the 1990s* (New York, NY: W. W. Norton, 1974).

6)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자연과 인간사회의 대립은 자연의 파괴와 자연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식 전환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생태적 자기 성찰이 각성되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요컨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가치매김하고 타자화했던 인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 자생 종교사상이자 미래사상인 대순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예견한 바 있다. 이들은 다시개벽, 삼계개벽, 정신개벽이라는 합축된 언어와 사상으로 인류와 세계에 도래할 새로운 정신과 문명의 열림을 알렸다. 수운(1824~1864)은 종전의 동양 전통적 개벽관과는 다른 창조적이며 자생적인 개벽사상을 정립하였고, 증산(1871~1909)은 개벽의 주체와 범주를 재해석하여 개벽사상을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종교운동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소태산(1891~1943)은 근대적 흐름과 제반 문제의식을 통찰하여 정신개벽이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개벽사상을 승화하였다.

세계가 한 울타리처럼 묶이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후자는 서구 문명의 종말과 이를 해결할 사상적 토대가 동양에 있다고 한국 신종교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신종교가 삶의 좌표를 잃고 해매는 우리에게 그릇된 의식 체계를 바꾸면 현대사회의 해악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도덕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해원상생사상은 세계와 우주에 누적된 원과 한을 근원적으로 풀어 인류가 항구적 평화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법리로서 “전세계의

7) 전철후, 「인류세 시대와 종교의 평화론」, 『종교로 평화 만들기: 반일과 혐한을 넘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2), pp.336-340 참조.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을 구현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sup>8)</sup> 해원상생은 대순진리회의 종지로서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상이다. 오늘날 해원상생은 각계각층에서 인용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며, 제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인용되고 있다.<sup>9)</sup> 물론 ‘해원’과 ‘상생’이 신조어는 아니다. 하지만, 해원상생은 세계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 등과 같은 세계사적 갈등구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노정된 다양한 갈등 양상과 영역에서 이를 해소하는 원리와 사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화해와 공존을 견인하는 평화이념으로서 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가 전면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할 미래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세계경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이 전면 개편되지만, 분명한 것은 대규모 재난 앞에서는 국가 간 장벽은 무의미하고 연대와 협력이 주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증산 성사가 주창한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인류와 세계의 협력과 상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II. 해원상생과 세계적 문명 위기의 극복

한국 신종교는 기존 사회와 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근간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태동한 새로운 차원의 종교운동이다. 따라서 신종교는 기성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표방한다. 이는 관

8) 『포덕교화기본원리』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5), p.8,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이다. 전세계 인류의 화평이 세계개벽이요 지상낙원이요 인간개조이며 지상신선이다. 인류가 무편무사하고 정직과 진실로서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의 도덕심이 생활화된다면 이것이 화평이며 해원상생이다.”

9)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상생’ 이념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8 (2004), pp.26-28 참조.

점을 달리하면 신종교운동에는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과 관련한 제반 분야의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sup>10)</sup>의 세계진단과 우주관은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로 집약된다.

천지공사는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개정(改定)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온 인류를 구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적 의례이자 대역사로 설명되고 있다. 천지공사는 다양한 공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체계와 구조로 치결되어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요강(要綱)은 천지의 그릇된 도수(度數)와 착란을 재조정하고 인간세계와 신명세계에 누적된 포원(抱冤)과 상극을 풀고 해소함으로써 이 세계를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후 천선경(後天仙境), 조화세계(調和世界)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천지공사의 주된 내용이다.<sup>11)</sup>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김탁은 “기존의 창시자들이 이상사회를 정신적인 차원에서 설정하거나 죽음 뒤의 이상향으로 관념화시킨 데 비해, 증산은 현재의 사상을 바꾸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상을 이루어 나가자고 외친 사상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으며,<sup>12)</sup> 배규한은 천지공사는 “해원상생의 방법이자 실행 기제”로서 인간과 세계의 참상을 근원적이면서도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공사이며, “증산을 상제로 믿게 한 신앙적 근거이며 대순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정의하였다.<sup>13)</sup> 요컨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천지공사는 신성·불·보살의

10) 강증산 성사, 조정산 도주, 박우당 도전 등은 이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존호(尊號)인 증산, 정산, 우당으로 표기한다.

11) ‘도수’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따라 변화하는 천지의 원리이나 법칙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대순사상논총』 30 (2018)을 참조할 것.

12) 김탁, 『증산 강일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p.31.

13)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p.21, p.28.

간절한 청원에 의하여 진멸지경에 처한 세상을 구하고자 구천에서 인신 강세한 증산이 삼계를 대순하고 상도를 잃은 천지의 도수와 근본 질서를 조정하여 후천의 무궁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구제창생의 공사이자 삼계개혁의 공사라 설명될 수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四月에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14)</sup>

위의 구절에서 증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낡은 집’에 비유하면서 ‘개혁’이라는 ‘공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테면 증산은 기존의 것을 증축(增築)할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 만들어야 한다는 신축(新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점이 여타의 종교적 세계관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다. 즉, 시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래가 아닌 운수를 초월해 증산에 의해 새롭게 지어 만들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산은 개혁공사의 주재자임을 천명한다. 증산은 구천(九天)이라는 최고의 천계에서 원시의 신성·불·보살들의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sup>15)</sup>는 절박한 하소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강세(降世)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증산의 이러

14) 『전경』, 공사 1장 2절.

15) 같은 책, 예시 1절.

한 선언에서 그의 독특한 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세계 구원의 요청이 인간이 아닌 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신은 인류가 구원을 소망하는 청원의 대상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간 구원의 주체들이 오히려 구원을 청하는 객체로서의 위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신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반추하면, 증산에게 있어 광구의 대상은 인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신명계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산의 세계진단은 인간과 신명, 자연을 아우르는 통합적 병인(病因)의 파악으로 진행된다.

증산이 파악한 병인은 인간의 일상적 감정인 원이었다. 원을 단순히 일상적인 감정에 한정하지 않고 그 부정적 측면과 영향력을 간파한 증산은, 전 우주와 온 인류에게 누적·확산되어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삼계에 누적되었던 원을(冤鬱)을 일소하고, 동시에 그 원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증산은 원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한편, 원에 의해 야기된 세계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해원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산은 역사에 나타난 원의 뿌리와 전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sup>16)</sup>

위의 구절에서 증산은 이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그로 인해 누적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방법은 천지인 삼계의 순환과 통합적 조화를 이끌어내는 ‘공사(公事)’라는 공적 처결 또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증산은 해원공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원의 뿌리와 역사의 시작을 단주의 원으로 선언한다. 물론 단주의 원은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증산은 이들의 원을 인과적 차원에서 풀면 만고(萬古)에 쌓였던 원율이 해소되리라 예시한 것이다. 이러한 증산의 종교적 구상은 원의 실제적 해소로서 해원을 지향하면서 천지공사의 기저로 자리매김한다.

‘해원’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원한과 그 원한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상생’은 해원을 통해 발현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인류 역사는 상극에 지배된 세계로서 대립과 갈등의 원한이 쌓이고 맺혀 점철된 사회였다. 하지만, 증산이 예시한 원과 한이 해소된 앞으로의 세상은 상생의 도가 기축이 되어 사회적 질곡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선경’의 이상세계이다. 선천의 운행 원리가 상극이었다면, 이와 달리 후천은 상생으로 운영되는 세상이다.<sup>18)</sup>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증산은 오직 해원상생의 법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선천의 모든 부정적 결과가 근원적으로 상극적 요인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후천으로의 전환은 상극을 해소할 대극적 이념을 모색하게 한다. 따라서 증산은 기존의 낡은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이념과 실천 원리로서 해원과 상생을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해원상생은 천지인 삼

16) 같은 책, 공사 3장 4절.

17) 고남식,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p.30-49 참조.

18) 대순사상의 선후천 세계관에 대해서는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을 참조할 것.

계의 인간·신명·자연이 모두 해원하고 상생하는 조화적(調和的)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인 동시에 원리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현재 인간과 자연이 직면한 세계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해원상생의 법리에 의거한 지구촌 인류의 정신개벽과 실천적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Ⅲ. 해원상생의 실천과 항구적 세계평화

해원상생은 인간과 세계에 축적된 원을 해소하고 인간, 신명, 자연에 상생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미래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되는 ‘인존시대’, 인류가 염원해 온 ‘선경시대’, 상생과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시대’가 도래한다는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다. 해원상생의 의미는 맺힌 원(冤)을 풀고 서로 잘되게 한다는 것이다. 해원상생의 법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원을 맺지 않거나 맺힌 원을 풀려면 먼저 남을 잘되게 해야 자연히 나도 잘 된다고 하는 선타후기(先他後己), 자비존인(自卑尊人)의 이타적 정신과 덕성 함양을 강조하고 그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관해 우당<sup>19)</sup>은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뚫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sup>20)</sup>라고 하여 해원과 상생의 원리를 자각하고 체득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

19) 박우당 도전은 1958년 도주 조정산의 유명에 의해 종통을 계승하여 1969년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

20) 『대순지침』, p.27.

퇴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복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sup>21)</sup>에서 해원과 상생의 언행을 생활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존과 평화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세계적 문명위기의 해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인간이 해원과 상생의 원리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대순사상의 핵심 교의인 해원상생의 실천으로 세계 문명의 위기 극복과 대순사상에서 예시하는 항구적 평화세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1. 해원상생의 사회적 실천

대순진리회<sup>22)</sup>는 포덕·교화·수도의 ‘3대 기본사업’<sup>23)</sup>을 통해 해원상생의 종교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sup>24)</sup> ‘3대 중요사업’으로 해원상생의 사회적 실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이 글의 논지에 맞게 주로 해원상생의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같은 책, p.43.

22) ‘대순진리회’는 박우당 도전이 1969년 창설한 종단으로 현재 한국 신종교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종단이다.

23) 대순진리회의 ‘3대 기본사업’은 포덕·교화·수도이다. 포덕(布德)은 덕화의 선양으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윤리도덕의 상도를 이룩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선경 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 주는 것이다. 교화(教化)는 상생원리를 몸소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윤리실천이다. 수도(修道)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으로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24) 자세한 내용과 현황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종단사업」 ([http://daesoon.org/business/base.biz\\_1.php](http://daesoon.org/business/base.biz_1.php), 2023. 9. 1. 검색)를 참조함.

〈표 1〉 3대 중요사업 주요 내용

3대 중요사업		연차적 시행 내용
구호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돕기, 지적장애인돕기, 이재민돕기, 양로원·고아원돕기, 해외구호자선사업 등 소외된 사람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사업	새마을사업, 자연보호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 운동, 지역개발사업, 방범활동, 화재방지캠페인, 원호성금, 방위성금, 농촌일손돕기, 미아보호운동, 노인잔치, 경로사상 선양운동, 청소년육성회돕기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의료사업	분당제생병원, 동두천제생병원, 강원도고성제생병원을 건설하여 구제창생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진요양시설, 대진요양병원, 대진노인복지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육사업	육영사업	1984년 학교법인 대진학원의 설립이래 대진고(1984), 대진여고(1988), 분당대진고(1994), 대진디자인고(1994), 일산대진고(1995), 부산대진전자통신고(1995) 등 6개 고등학교와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1991)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장학사업	대순장학회를 발족하여 매년 전·후반기에 중·고·대학생 중 우수 및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3대 중요사업’은 구호자선·사회복지·교육 사업 등이며, 여기에는 종단 재원(성금)의 70%가 사용되어 사회로 환원되고 있다. 구호자선 사업은 소외당하거나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 구호, 소외당하기 쉬운 이들에 대한 구호자선, 고아·병자·노약자·빈민 등의 불우이웃에 대한 구제사업을 펴나가는 것이다. 이 사업은 주로 대순청년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에는 해외구호자선사업이 시작되었고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의 발족으로 국제적인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안주에 보은(報恩)하는 믿음으로 헌신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자.”<sup>25)</sup>는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원상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진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sup>26)</sup> 평가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종합대학교인 대진대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학생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우당은 “종교의 본질은 구체신앙에 있으며 이것의 구체화는 사회와 민생을 구호하는 사업을 펴는 일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7)</sup> 이는 해원상생을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로서 구체화할 때 해원상생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되고 그 현대적 의의가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는 아직도 선천의 상극적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상극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바로 인간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해원상생의 법리를 인간존중과 세계평화에 이르게 하는 기제로 자각하고 해원상생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순진리회가 3대 중요사업으로 해원상생을 마음으로부터 언행으로 생활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유이다.

---

25) 『대순지침』, p.101.

26) 이경원·최경익,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신종교연구』 25 (2011), p.246.

27) 정대진, 「포덕천하와 광계창생의 실천을 위하여」, 『대순회보』 11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pp.8-9.

## 2. 해원상생과 세계평화

이상사회는 인간의 소망과 동경을 담은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의 세계는 끝이 없으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한다 해도 그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불만과 불평이 없는 공간, 모든 이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 죽지 않고 영위되는 영원한 삶, 게다가 이러한 이상향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진다는 설정 등이 그것이다.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이상사회에 관한 보편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원초적인 욕구가 다르지 않음을 대변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사회를 지향하면서도 그 이면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산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의 법리로 세계적 문명 위기를 극복하고 예시되는 세계는 기존의 종교적 이상사회와는 구분되며 문명적으로 세 가지 시대적 특성을 띠고 있다. 필자는 이 시대적 특성에 따라 해원상생이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세계를 대순사상에 근거해서 ‘인존문명시대’, ‘선경문명시대’, ‘평화문명시대’로 규정하고 편의상 인존시대, 선경시대, 평화시대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인존시대

인존시대에는 고도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도래하고 해원상생이 실현되어 인간의 정신·물질적 욕망이 충족됨으로써<sup>28)</sup> 인간 내적으로는 안심·안신<sup>29)</sup>의 안정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외적으로는 세계에

28) 『전경』, 교법 3장 24절,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종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누적된 원과 한이 해소되어 모든 대립적 사회관계가 없어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인종·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어 상호 존중이 일반화된다.<sup>30)</sup> 그래서 인존시대는 ‘인류 보편의 욕망이 충족’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되는 시대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31)</sup>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욕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sup>32)</sup>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 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sup>33)</sup>

동양사상에는 사람이 우주의 주체가 되며 우주적 중심이라는 ‘인본사상’이 있다. 이는 인간을 우주의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인간을 물리적 천체인 대우주에 상응하는 소우주로서 인간을 이해한다.<sup>34)</sup> 대순사상의 ‘인존(人尊)’은 동양의 인본사상과 철학·종교적 관

29) ‘안심’은 모든 행동의 주관자인 마음이 항상 양심의 상태를 지니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고, ‘안신’은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여 몸을 안정케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p.15 참조.

30) 『전경』, 예시 80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쾌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전경』, 예시 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욕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31)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32) 같은 책, 교법 2장 58절.

33) 같은 책, 공사 1장 35절.

점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적 사유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의 실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산은 인존을 표방하며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산은 “일이 마땅히 왕성해지는 것은 천지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기 때문에 천지가 사람을 낳아 쓴다.”<sup>35)</sup>라고 인간의 주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었지만,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36)</sup>고 하여 인간의 중추적 역할과 능동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시 말해 증산은 인존이 인간의 관념에서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한 많은 동토의 역사에서 고통받는 생민들과 함께하는 인간으로서의 상제(증산)가,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의 세계를 개혁하는 개벽장(開闢長)으로서 실존적으로 나타난다. 해원상생의 원리와 해원공사로 노정되는 인존시대는 인류 ‘포원’의 기본적 원인인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 충족되고 인간과 세계의 모든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인간 존중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인간 내적으로는 ‘안심·안신’의 평화가, 인간 외적으로는 상생의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라 하겠다.

## 2) 선경시대

인류사회에 점철된 갈등, 다툼, 전쟁 등의 주요 원인을 증산은 원과 한의 누적으로 진단한다. 선천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었으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 세계였으나 후천에는 인간 욕망이 충족되는 완전한 성공시대이다. 선천은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연을 ‘극(剋)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후천선

34) 볼파르트 파넬베르크, 『인간학 I: 인간본성론』, 박일영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2003), p.25.

35) 『전경』, 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36) 같은 책, 교법 3장 35절.

경은 해원상생의 질서에 의해 인간이 타인과 자연을 ‘생(生)’할 때 욕망이 충족되고 그 일이 성공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선천 문명시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 믿음이 일으킨 인간의 욕망이 세계대전을 일으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본질마저도 파괴할 수 있었다. 근본악을 경험하고 세계애로 사유하고자 했던 한나 아렌트는 “세계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다.”<sup>37)</sup>고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공존·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 아래 세계가 놓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의 교만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삼계가 혼란해졌다고 본 증산은 창생을 살리고자 새로운 세상인 후천선경을 연다고 천명하게 된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예시하는 선경시대는 상생과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낙원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전쟁과 굶주림과 사회적 차별이 없는 균형과 조화의 세상이다. 또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등으로 선천 상극시대의 모든 갈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조화되는 초문명 시대이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sup>38)</sup>

선천에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 돈이란

37)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파주: 한길사, 2017), p.23.

38) 『전경』, 공사 3장 5절.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역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 나니 백년 탐물(百年貪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sup>39)</sup>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 간을 지어 각자가 닭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sup>40)</sup>

구한 말 당시 물질(재화)의 부족과 낙후된 경제 상태는 작게는 민중의 도탄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인류와 세계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증산은 물질적, 경제적 차별과 차이로 인한 원과 한이 없는 선경 세상을 예시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에 맡겨진 재화의 획득이나 경제적 발전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도 했지만, 자원과 재화의 부족,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해 다툼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도 제공했다. 그래서 선경시대는 재화의 생산·소비·분배와 경제발전이 타인과 사회를 잘되게 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경제 시대이다.

### 3) 평화시대

모든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며, 각 종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이 평화에 관한 연구는 근대까지 주로 종교 및 철학 분야에서 사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주창한 ‘영원한 평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평화라기보다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원리였다. 영원한 평화는 인간의 도덕적 원칙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이룩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할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sup>41)</sup> 평화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벗어나

39) 같은 책, 교법 1장 63절.

40) 같은 책, 교법 3장 44절.

현실에서의 구체적 참여와 실천을 지향하는 독자적 연구체계를 갖춘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부터이다. 세계대전 이후 평화연구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평화의 반대개념은 전쟁이었으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로 규정되었다. 이에 평화 담론은 세계대전의 재발 방지와 직접적 폭력의 문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주로 ‘전쟁의 회피’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였다.<sup>42)</sup>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평화연구는 평화를 전쟁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sup>43)</sup> 평화연구는 전쟁의 원인 그리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평화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으로 확립되었다. 냉전 종식 후 평화에 관한 복합적이고 새로운 주제들이 부각되었다. 인종차별, 문명갈등, 종교분쟁, 난민문제,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세계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함 등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sup>44)</sup> 이에 적극적 평화개념이 정책 결정을 위한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sup>45)</sup> 이제 오늘날의 평화연구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직 내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적 변수뿐만 아니라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세계 연구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평화를 중심으로 구조적 및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며 항구적 평화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은 평화라고 하는 인류 대망의 문명사적 화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1) 김성철, 「평화학의 진화: 연원, 계보, 복합화」, 『통일과 평화』 13-2 (2001), p.12.

42) 하영선,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p.197.

43)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서울: 들녘, 2000), p.8.

44) 정재요, 「평화이론과 현실」, 『정치정보연구』 20-1 (2017), pp.149-150.

45) Ronal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2 (2001), p.88.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sup>46)</sup>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건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sup>47)</sup>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仙境)의 운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과 재겁(災劫)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 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 ...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인 것이다.<sup>48)</sup>

대순사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해원상생사상은 전 인류가 조화롭게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류 대망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시대를 필자는 항구적 평화시대로 규정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후천의 평화는 인류가 안고 있는 오랜 문제와 장차 예상되는 세계적 위기를 풀어가는 해원의 과정과 상생의 법리로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해원상생은 전 세계 인류가 대망하고 있는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평화사상이요, 사회윤리이자, 상생원리로 기능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당면한 세계적 문명 위기의 해결과 극복뿐만 아니라 인류가 갈망해 온 항구적 세계평화의 구현에 해원상생의 세계적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46) 『전경』, 예시 6절.

47)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48) 『대순진리회요람』, p.8.

## IV. 맺는말

세계 인류는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도래한 대전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 인류와 국가 간의 총체적 협력 없이는 지구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곧 지구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세계는 절감하게 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의 담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자성과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세계 문명 위기의 문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해결의 결정적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작금의 세계 문명 위기로 보여지는 지구촌의 다양하고도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류와 세계의 밝은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의 파국이 도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문명 위기에 대해 인류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전 지구적 성찰과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문명 위기의 해결에는 구체적으로 인간과 인간, 민족 간, 국가 간의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대순사상의 대표적인 평화 사상이인 해원상생은 전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류 대망의 가치를 담고 있다. 증산 성사가 천지공사에서 말한 해원의 범주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부터 인류와 세계 그리고 신명에 이르기까지 삼계에 누적된 원의 근원적 해소이다. 또한, 해원상생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대순사상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신명이 나에게 베풀어 준 깊은 은혜를 자각하고 갚는 보은상생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순사상은 세계 문명 위기의 해결에는 상극지리에 지배

되어온 과거 세계를 상생지리로 운행되는 미래세계로 전환하는 해원상생의 법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해원상생의 세계적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한 해원상생의 실천으로 도래하는 세계는 인존시대, 선경시대, 평화시대 등으로 특징되는 항구적 평화세계로 예시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포덕교화기본원리』,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5.
- 고남식, 「해원 주체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김성철, 「평화학의 진화: 연원, 계보, 복합화」, 『통일과 평화』 13-2, 2001.
- 김탁, 『증산 강일순』,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대순사상논총』 30, 2018.
- 도정일, 『시상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서울: 생각의나무, 2008.
-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2018.
- 볼프르트 파넨베르크, 『인간학 I: 인간본성론』, 박일영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2003.
-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서울: 들녘, 2000.
-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상생’ 이념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8, 2004.
- 이경원·최경익,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신종교연구』 25, 2011.
- 전철후, 「인류세 시대와 종교의 평화론」, 『종교로 평화 만들기: 반일과 혐한을 넘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2.
- 정대진, 「포덕천하와 광제창생의 실천을 위하여」, 『대순회보』 11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정재요, 「평화이론과 헌법」, 『정치정보연구』 20-1, 2017.
- 하영선,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과주: 한길사, 2017.

Ronal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2, 2001.

Robert L. Heilbroner, *An Inquiry into the Human Prospect: Looked  
at Again for the 1990s*, New York, NY: W. W. Norton, 1974.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김재중 · 김혜리, 「유엔 사무총장 “인류, 기후 지옥 가는 고속도로서 가속  
페달 밟아” ... ‘협력이나 멸종이나 택하라’ 경고」, 《경향신문》  
2022. 11. 8.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http://daesoon.org>

■ Abstract

## **How Can Daesoon Thought Contribute to Resolving Global Civilizational Crises of the World?**

**Bae Kyu-han**

Chairman,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Daej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pprehend a religious role in resolving present-day global civilizational c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religious thought.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causes of civilizational crises that have persisted into modern times, as explained by Daesoon Thought originating in the end of the Joseon era, a period of upheaval. In addition, the study also delves into the reasons why the resolution and overcoming of civilizational crises require the principle of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and its social practice. The paper elaborately elucidates the final state of the world established by practicing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is a representative concept for illuminating world peace as well as the principle. Jeungsan, the Holy Master, foretells that the world, the cosmos, namely the three 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have accumulated grievances and grudges, yet they are resolved through

religious reordering and the principle of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Finally, he states that the paradisaical land in the Later World represents the eternal peaceful world. This prophecy suggested by Jeung-san, the Holy Master, provides an essential clue for the resolution and overcoming of civilizational crises faced by humanity. Simultaneously, he presents a hopeful milestone to the world in civilizational crises.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natural disasters, climate change, explosive population growth,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gradation, resource scarcity, loss of biodiversity, inequality and poverty, excessive consumption, constant wars, and the accumulation of nuclear weapons, humanity and the world are coming together to make various efforts to address global civilization crises. However, as of yet, a clear consensus and viable alternatives needed for problem resolution have not been identified.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he way in which Daesoon Jinrihoe can help resolve civilizational crises by dividing the topics into three sections: 'the global civilizational crises and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resolution and overcoming of grievance for mutual beneficence and global civilizational crises.'

**Keywords:** Daesoon Thought, Resolution of Grievance for Mutual Beneficence, world peace, crisis of the world civilization, era of human nobility, paradisaical era, peaceful era